마포구공단, ‘2030 중장기 경영전략’ 워크숍 개최

김혜란 기자 | 승인 2025.12.09 02:19

한일용 이사장 포함 임원급 참여… 기반 비전·핵심가치 재정립 본격화

지난 12월5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공단 임원을 대상으로 '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.

[시정일보 김혜란 기자] 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한일용)은 지난 12월5일 2층 대회의실에서 <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>을 위한 전사 워크숍을 개최했다.

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공단의 미래 방향을 재정립하고,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전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.

한일용 이사장을 비롯해 실·부서장 및 전략 관련 담당자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, 워크숍은 1부 ‘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경영여건 분석 공유’, 2부 ‘핵심가치 및 비전·슬로건(안) 논의’ 순으로 진행됐다.

1부에서는 <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>의 추진 배경과 절차, 향후 일정 등 기본적인 소개와, 공단을 둘러싼 정책·제도 변화, 재무·조직·서비스 현황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분석 결과가 논의됐다. 이를 기반으로 현재 공단이 직면한 과제와 향후 강화해야 할 역량에 대해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공유했다.

2부에서는 우수 지방공기업 사례와 공단 특성을 종합 분석해 도출한 4대 핵심가치, 각 가치의 의미와 선정 배경이 소개됐다. 또한 공단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(안) 3개와 이에 연계된 슬로건(안)도 확인할 수 있었다.

공단은 현장 의견 수렴 후, 추가 검토와 함께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최종 비전·슬로건을 확정하기로 했다.

이후 확정된 비전과 핵심가치는 부서별 전략과제 및 대내외 홍보 등에 연계돼 공단이 추구하는 일관된 정체성, 방향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.

한일용 이사장은 "2030 중장기 경영전략은 공단의 '미래 5년, 10년'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"이라며, "외부 전문성과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,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"라고 소감을 밝혔다.

김혜란 기자

저작권자 ©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